



교사 가이드

인류 모두의 치료받을 권리

도입 1: 지구촌, 건강 불평등

- **보통 아이가 설사를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에 아이를 데려간다. 그러면 간단한 약이나 의료 처치로 설사를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적시에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해 설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매년 80만 명이나 발생하고 있다.
-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90%는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90%는 가난한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보유한 보건 자원은 전 세계 보유량의 10%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병에 걸린 유아가 매일 1만 5000명씩 사망하고 있다.

지구촌, 건강 불평등

- 보통 아이가 설사를 하면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90%는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도입 2: 지구촌, 건강 불평등

-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건강 불평등:** 2020년 12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80만 명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빈곤층이 맞이한 상황은 한층 더 심각하다. 이들은 필수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질병 예방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해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된다. 또한 국제적 방역 조치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국제구호물자 수송이 어려워져 전 세계에서 매일 1만 2000명의 사람들이 아사 위기에 처해있다.

지구촌, 건강 불평등

-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건강 불평등

1. 건강 불평등이란 무엇일까요?

- ‘건강 불평등’이란 소득수준, 직업, 계층, 재산, 교육 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상의 차이를 말한다.
- **현재 보건 수준은 인류 역사상 최고:** 영양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인의 수명은 점점 늘고 있다. 예상 수명의 증가,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 면역력의 증가 등 전 세계 의료 보건 실태는 역사상 가장 좋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1. 건강 불평등이란 무엇일까요?

- 건강 불평등이란 소득 수준, 직업, 계층, 재산, 교육 수준 등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건강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 현재 보건 수준은 인류 역사상 최고
- 치료받지 못해 죽는 사람들, 360만 명

- **치료받지 못해 죽는 사람들, 매년 360만 명:**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뿐만 아니라 제때 이뤄지는 예방접종,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필수 조건들이 개인, 국가, 사회에 따라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어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매년 약 360만 명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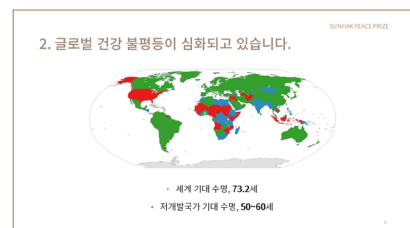
2. 글로벌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영유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 공중 보건 질의 척도:** 전 세계적으로 공중 보건의 질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 지표는 영유아 사망률(태어난 아이가 출생 이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과 모성 사망률(임신, 출산과 관련해 임산부가 사망할 확률)이다. 한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공중 보건이 개선되면 영유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은 감소한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위생 개선 사업, 방역 사업, 예방접종 사업뿐만 아니라 신생아 감염 관리 시스템, 임산부의 산전 관리, 모자보건 교육 등은 어린이와 여성의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키고 이는 곧 한 나라의 공중 보건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영유아와 산모가 가장 많이 사망하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저개발국 어린이와 여성들은 여전히 보건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영유아 사망률은 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과 풍토병이 주원인이며, 모성 사망률은 열악한 산전 관리, 분만 시설 부족, 출산 시 감염 등이 주원인이다.



2. 글로벌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세계 평균 수명, 73.2세:** 지난 100년 동안 인류의 기대 수명은 크게 증가했다. 2020년 세계 평균 수명은 73.2세이며, 선진국은 대부분 80세 이상이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공중 보건 환경이 개선되면서 곧 평균 기대 수명 100세를 전망하는 나라까지 등장하였다. 영유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의 꾸준한 감소는 기대 수명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 **저개발국가 평균 수명 50~60세:** 2020년 기준 저개발국가들의 평균 수명은 50세~ 60세 사이이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영유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 지역들의 많은 아이가 장티푸스,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풍토병과 전염력이 강한 소아마비, 폐렴, 콜레라, 홍역 등의 질병에 걸려 사망하고 있다.



2. 글로벌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모성 사망률 1000명 중 2.1명(유엔, 2010)
- 아프리카 모성 사망률 1000명 중 4.8명: 전 세계 모성 사망의 99%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며, 이 중 87%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발생한다. 저개발국가에서 임신과 출산은 전문 인력의 도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더불어 경제적 가난과 영양실조, 지역적 고립, 위험한 출산 전통 등 때문에 산모 사망률이 높다. 전 세계에서 모성 사망률이 가장 높은 10개국은 남수단, 차드,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모리타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아프카니스탄이다.
- 전 세계 5세 이하 사망률 1000명 중 41명(유엔, 2016)
- 아프리카 5세 이하 사망률 1000명 중 79명: 다섯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세계 어린이들의 42%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망 아동의 2/3 이상은 간단한 예방접종과 치료만으로도 살릴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폐렴, 설사, 출산질식,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과 질병이 사망의 주원인이다. 세계에서 5세 미만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소말리아로, 지난해 1000명 당 133명이 사망했다.



3. 왜 건강 불평등이 생길까요?

- 국가의 의료 인프라 부족: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의료진 부족, 의료 시설 부족, 의약품 부족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예방접종 사업, 보건방역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질병의 예방 또한 지지부진하다.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뎅기열, 소아마비, 홍역 등은 적정 시기의 예방접종과 위생적인 환경 관리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이지만 저개발국가에서는 여전히 치명적인 질병이다.
- 가난으로 인한 치료의 어려움: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치료제를 구입할 수도 없다. 지구촌 약 8억 명의 사람들이 가구 예산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중 1억 명은 이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하루 1.9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해야 할 정도로 극도의 가난한 상태다(2018년 기준).
- 질병에 대한 인식 부족: 저개발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는 보건 위생 및 의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어진다. 철저하지 못한 위생 관념, 전통적 민간 신앙에 대한 맹신, 질병과 예방, 치료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인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고 질병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 열악한 위생 시설: 저개발국가의 사람들은 위생 시설의 부족으로 개방된 장소, 강가,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이들이 노는 공간 근처

3. 왜 건강 불평등이 생길까요?

▶ 질병의 예방과 치료 기회의 불평등

- 국가의 의료 인프라 부족
- 가난으로 인한 치료의 어려움
- 질병에 대한 인식 부족
- 열악한 위생 시설
- 수익성이 낮아 연구되지 않는 의약품

에서 배변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활방식은 질병의 발생을 부추긴다. 오염된 물을 사용함으로써 세균과 기생충에 감염되고, 나아가 설사,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의 질병에 감염된다. 지구촌에서 위생 시설이 가장 열악한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31%), 남아시아(36%), 오세아니아(53%)이다.

- **수익성이 낮아 연구되지 않는 의약품:** 개발도상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풍토병이나 전염병 치료제들은 선진국에서 많이 팔리는 각종 건강 보조제나 암 치료제에 비해 그 수익성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질병의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소극적이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4.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질병은 무엇일까요?

- **폐렴, 매년 256만 명 사망:** 폐렴은 폐의 폐포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매우 흔한 질병이며,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폐렴구균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예방접종과 진단, 치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2017년 기준 전 세계 256만 명이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그 중 1/3은 5세 미만 영유아였다.
- **결핵, 매년 150만 명 사망:** 결핵은 많은 선진국에서는 사라진 질병이지만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발병하고 있다. 결핵균이 몸속 폐, 신장, 신경, 뼈 등에 침투하여 질병을 일으키며 제대로 진단,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 2018년 기준 전 세계에서 약 1천만 명이 결핵에 걸렸고 1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에이즈, 매년 69만 명 사망:**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병원체인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돼 체내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종의 전염병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 중 하나다. 주로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심각히 전파되고 있는데, 전체 감염자 중 2/3 이상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거주 중이며 그 중에는 어린이의 비율도 약 5%를 차지한다. 에이즈는 아프리카의 청소년(10~19세) 사망 원인 1위이며, 전 세계 청소년 사망의 두번째 원인이다.
- **말라리아, 매년 40만 명 사망:** 학질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인 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풍토병으로, 감염자 중 10% 이상은 사망한다. 2019년 기준 약 2억 2천 9백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렸고, 이 중 40만 9천 명이 사망하였는데 5세 미만 영유아의 비중이 가장 컸다. 말라리아는 살충 처리가 된 모기장과 말라리아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15일 동안 약물치료를 받으면 목숨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모기장, 말라리아 백신, 말라리아 치료제는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너무 비싸다. 하루 평균 생활비가 1달러 안팎인

SUNHAK PEACE PRIZE

4.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질병들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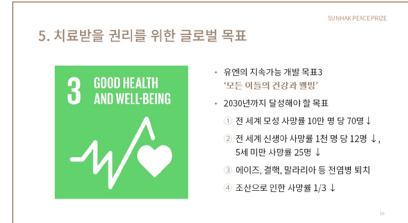
- 폐렴, 매년 256만 명 사망
- 결핵, 매년 150만 명 사망
- 에이즈, 매년 69만 명 사망
- 말라리아, 매년 40만 명 사망



이들에게 약 20달러에 달하는 말라리아 치료 약 가격은 턱없이 비싼 수준이다.

5.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글로벌 목표

-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3. ‘모든 이들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 +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이며, 인류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류 공동의 17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
 - ① 전 세계 모성 사망률을 10만 명당 70명 미만 수준으로 낮춘다.
 - ② 모든 국가들이 출생 인구 1천 명당 적어도 신생아 사망률을 12명, 5세 미만 사망률을 25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신생아, 영유아,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
 - ③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NTD)과 같은 전염병을 근절하며, 간염, 수인성 질환, 기타 감염성 질환을 퇴치한다.
 - ④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산으로 인한 사망을 1/3 수준으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한다.



6.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예방접종,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 예방접종은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전략이다. 1990년 이후로 실시한 세계적 예방접종 사업으로 소아마비는 99% 이상 감소하였으며, 전 세계 홍역 사망자 수는 2000년~2018년 사이 약 2천 3백만 명 감소하였다.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은 아이들과 산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 백신을 통해 획득한 면역력은 태아,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대표 질병인 홍역,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이 질병들은 보통 5세 미만 아동들에게 흔히 발생하며 이들의 사망 원인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는 여전히 많은 아동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저개발국가에 백신을 공급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세계백신연합은 2000년 백신 보급 확대 및 신규 백신 개발을 통해 가난한 나라의 아동 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5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580달러 이하인 49개 최빈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7.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 기초 보건 시스템의 강화:**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의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위생 개선과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각국 정부에 기술, 전략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의료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공중보건 인력을 훈련시키는 등의 지원 사업을 펼친다. 특히 필수 의료시설이 부족해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개발국가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기초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신생아 보건 지원:** 전 세계적으로 매일 약 7천 명의 신생아가 사망하고 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 필수 의료서비스 부족은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신생아의 사망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관련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신생아 대상 예방접종, 영양공급, 에이즈 모자 감염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산모 보건 지원:** 전 세계적으로 매일 약 830명의 여성들이 임신, 출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산모 사망은 적절한 의료 지원과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를 도와줄 전문적인 도움, 깨끗한 물, 적절한 영양,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백신 등을 전 세계 모든 산모와 신생아가 누릴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를 중심으로 보건 의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8.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노력: 캠페인

- 폐렴(매년 256만 명 사망) 근절을 위한 ‘크리스마스 썸 모금운동’:** 크리스마스 썸은 결핵 퇴치 기금을 모으기 위하여 매년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전후에 발행하는 우표 형태의 증표이다. 모아진 기금은 결핵 환자 발견, 취약 계층 결핵 검진, 결핵 홍보, 결핵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국내외 취약계층 결핵관리지원 등에 쓰인다, 19세기 초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결핵이 전 유럽에 만연하자,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우체국 직원인 E.홀벨은 우편물을 정리하던 중 카드와 소포에 크리스마스 썸을 붙여 판매하면 많은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1904년 12월 10일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썸을 발행하였고, 그 뒤 세계 각국이 발행하고 있다.
- 결핵(매년 150만 명 사망) 근절을 위한 ‘세계 결핵의 날’:**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다. 이날 각국에서는 결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책을 전달하는 운동을 벌인다.

- **에이즈(매년 69만 명 사망) 근절을 위한 ‘세계 에이즈의 날’:**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이날 각국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책을 전달하고,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벌인다. 혈액과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붉은 리본’을 몸에 달고 에이즈 감염자들을 포용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붉은 리본 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 **말라리아(매년 40만 명 사망) 근절을 위한 ‘말라리아 모기장 보내기 운동’:** 말라리아는 한 해 2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4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질병이다. 하지만 살충 처리된 모기장 안에서 잠자는 것만으로도 말라리아 사망률을 20% 이상 낮출 수 있다. 모기장 하나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데에는 10달러 안팎의 비용이 필요한데, 대다수 아프리카 주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유엔과 유니세프에서는 그들을 위해 모기장을 보내거나 그 비용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9.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노력한 단체들

- **빌 & 멜린다 재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립자인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가 저개발국가 주민들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서 소외된 것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2000년에 설립한 재단이다. 재단은 저개발국가의 보건 의료 확대를 위한 공헌을 퇴치하며 교육 기회 확대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을 펴고 있다. 재단 설립 이후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에이즈 퇴치 기금 등에 기부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인 원월드헬스(One World Health)를 설립하여 저개발국 풍토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 **국경없는의사회:** 1971년 프랑스 의사들과 의학 전문 언론인들에 의해 설립된 국제 인도주의 의료구호 단체로, 전 세계에서 29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인종, 종교, 성별, 정치적 성향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의료 지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세계 각지의 분쟁·참사 지역에 신속히 들어가 구호활동을 펼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일반 대중의 관심을 촉구한 공로로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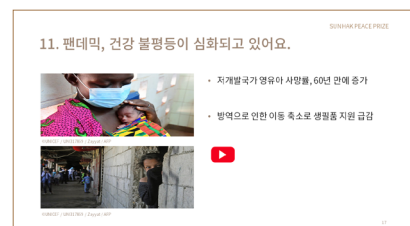
10.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노력한 인물

- **지노 스트라다:** 이탈리아의 외과의사로 28년 동안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난민, 전쟁 희생자, 빈민들에게 긴급 의료구호를 펼치고 있다. 1989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참전 의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4년에는 전쟁 희생자와 빈곤층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 긴급의료 단체인 ‘이머전시’를 설립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 구호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선학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인권이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부격차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 **이머전시:** 이머전시는 전 세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1994년 지노 스트라다가 설립한 긴급 의료 구호 단체다. 현재 13개의 전쟁국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의료 여건이 취약한 17개국에서 60개 이상의 긴급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30년 동안 800여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 2008년에는 공공 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아프리카 11개국 정부로부터 국민의 무료 의료복지를 약속하는 ‘의료에 기반한 인권’ 서명을 받아냈다.
- + ‘이머전시’의 세 가지 원칙:
- ① 평등(Equality). 모든 인간은 경제적, 사회적 조건, 성별, 민족, 언어, 종교, 이념에 관계 없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
 - ② 고품질(Quality). 양질의 의료 수준은 반드시 모든 이들의 요구에 기반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의 진보 수준에 맞는 적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
 - ③ 무료(Free of Charge).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무료로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



11. 팬데믹 시대,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 **저개발국가 영유아 사망률, 60년 만에 증가:** 지난 30년간 지구촌은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꾸준히 협력해 왔고, 전 세계 5세 미만 사망자 수가 1990년 1250만 명에서 2019년 520만 명으로 감소해 사상 최대치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 보건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며, 수백만 어린이가 추가로 더 사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유엔은 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아, 라틴아메리카의 가난한 국가들에서 5세 미만 아동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2019년 대비 45%(120만 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방역으로 이동이 축소되어 생필품 지원 급감:** 코로나19 방역으로 물리적 이동이 급속히 축소되면서 저개발국의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의약품 지원과 예방접종 사업 중단, 의료시설 접근 제한 등의 조치는 다양한 질병과 싸움 중인 저개발국가 주민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 팬데믹의 극복 방안은 무엇일까요?

- **세계적 연대:** 코로나19의 방역은 국가 단위로 진행 중이다. 한 국가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방역 시스템이 설계되고 구축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확산한 글로벌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 공동의 위기가 찾아 온 만큼, 해결 또한 전 세계적인 연대 아래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자원 비축과 수출 금지 조치 등을 피하고 자원 공유, 기술 제휴로 협력해야 한다.
-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백신과 치료제 공급:** 코로나19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어야만 진정한 퇴치가 가능하다. 가장 가난한 나라의 가장 소외된 사람에게 백신과 치료제가 닿지 않으면 감염병은 지구상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백신이나 치료제의 ‘수익’보다 코로나 극복이라는 ‘공익’ 우선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에이즈 사례에서 보듯, 전 인류에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보급하기 위해서는 거대 제약회사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전권을 갖지 않고 공공재로 나누는 ‘특허 면제’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 **에이즈 대응에서 배우는 ‘특허 면제’:** WTO는 2001년 ‘도하 선언’을 통해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발표했다. 이 선언으로 매년 한 번 복용해야 하는 에이즈 치료제 가격이 1만 달러(약 1085만원)에서 100달러(약 10만원)로 떨어졌고, 1990년대 수천만 명에 달하던 에이즈 관련 질병 사망자 수가 2019년대에는 69만 명 선으로 급감했다. 특허 면제 조치만으로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골머리를 앓던 에이즈 사망자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13.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브레인스토밍 활동. 전체 슬라이드 내용을 상기하며 학생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실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끈다)
- 취약 계층에 대해 꾸준한 관심 갖기, 취약 계층을 돕는 국제기구나 NGO에 기부하기, 전 세계적인 질병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기, 취약 계층에게 구호 물품 보내기 등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 원격의료와 인공지능 진단을 확대하기, 깨끗한 식수, 위생관리, 손 씻기를 위한 투자 늘리기

